

해남군, '생산·소비 선순환' ... 잘사는 농어촌 만든다

해남미소 241억 역대 최고 매출 로컬푸드 직매장 36만명 발걸음 농가 판로 확대·농산물 기획·생산 공공학교급식 물류센터 건립 등

해남군이 2025년 해남 미래성장동력 육성의 핵심사업으로 '농어촌 수도, 해남' 비전을 선포하고 지역 생산·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잘사는 농어촌 기반 확보에 나선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 먹거리 생산과 가공, 온·오프라인 유통 체계 개선을 통한 농어민 소득 증대,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기틀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와 로컬푸드 사업이 꼽힌다.

해남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인 241억원을 달성하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쇼핑몰 중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는 민선 7기가 시작되던 2018년 22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입점 업체도 직영을 처음 시작하던 2011년 81개소에서 2024년 577개소까지 늘었으며 이에 따른 상품도 다양해져 현재 1019상품, 2707개 옵션을 판매하고 있다.

회원 수 또한 2011년 6만2446명에서 2024년 8만1666명으로 2만명 이상 늘었고, 카카오톡을 통한 B2B 판매 사업을 시작하면서 21만3788명의 카카오톡 친구를 확보했다.

로컬푸드 정책사업의 정착과 성장세도 놀랍다. 인근에 대도시가 없는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97억원, 70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이후 36만여 명의 소비자가 이용했으며 특히 개장 초기 104농가, 210개 품목으로 시작한 매장 규모가 지금은 589농가, 793개 품목으로 확대되는 등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학교급식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 59개소, 5700여명과 대한조식 등 공공급식 업체 7개소,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남의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해남미소와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내 중소농가의 판로확보를 통한 농어민 소득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해남미소와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지역의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소·가족 농 중심의 생산자들이 주로 입점하고 있다.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소농들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면서 농가 소득 또한 크게 향상돼 '월급 받는 농업인'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창출해 내고 있다.

또 해남군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전국 1위, 전국 최대의 친환경 농산물 및



해남군이 지역 로컬푸드매장과 '해남미소' 직영 쇼핑몰을 활용해 생산·소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해남군 제공

GAP(우수농산물) 생산 지역으로서 청정 먹거리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도 농식품 유통평가 대상, 농정업무평가 대상, 전남 유일 4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선정됐으며 2년 연속 지역먹거리지수 최우수 지자체에도 선정됐다.

군은 지금까지의 농어업 온·오프라인 역량을 총결집해 '농어촌 수도, 해남'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올해 2차 지역먹거리 계획을 실행,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해남산 농

산물 공급을 선도하는 공공학교급식 물류센터 건립, 기획 생산과 농가 조직의 고도화된 해남 먹거리 공급을 위한 광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로컬푸드 군수 인증제 활성화, 먹거리 복지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시스템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명령관 해남군수는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판매하는 것은 물론, 잘사는 농어촌 실현으로 농어촌 수도 해남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모집 무안군, 내달 21일까지 선착순

무안군은 '2025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21일까지 70명 모집한다.

20일 무안군에 따르면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전문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활동량계(스마트워치)와 연동된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자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 상담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돕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3년째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19세 이상 무안군민으로, 건강위험요인(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있는 경우 우선 등록할 수 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인 경우와 지난해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활동량계를 무료로 제공하고 6개월간 지속적 건강관리, 3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와 체계적인 건강 상태 분석 및 개선 목표 설정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61)로 신청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강진군보건소 간호사들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주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내 혈압·혈당알기 캠페인'을 펼쳤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내 혈압·혈당 알기' 캠페인

강진군이 최근 주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내 혈압·혈당알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의료진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강진군보건소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개별 건강 상담을 제공했다.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권고하고 보건소 검사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캠페인의 주요 목표는 주민들에게 혈

압과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방법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있다.

더불어 보건소는 노년층과 장·장년층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심뇌혈관질환 교육, 캠페인 등을 추진해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준호 강진군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내 혈압·혈당 수치를 알고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식생활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로 건강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완도군, 귀농인 농업 창업·주택 구입 지원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대상

완도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고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이다. 귀농·영농 교육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영농 기반을 갖추기 위한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

당 최대 3억원, 농촌 지역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이다.

대출 금액은 대상자 실적과 신용도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로 사업 계획, 사업 추진 의지, 영농 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며 고정 금리(연 2.0%)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 기한은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다.

신청은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농수산팀)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씨월드고속훼리(주), 이웃사랑 성금 기탁

3000만원 목포소외이웃 도움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7일 오후 2시 목포 시청을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씨월드고속훼리(주)는 매년 목포시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발전

기금도 쾌척하고 있다.

최근 전남지방경찰청 범범범 지원단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 범죄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사후 관리를 위해 지원금을 기부한 바 있다.

이혁영 회장은 "이번 성금이 겨울 추위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영암왕인문화축제 개최 일정 확정 3월29일부터, 구림마을 일원서

'2025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오는 3월 29일부터 4월6일까지 영암군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와 구림마을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 주제는 '위대한 항해(The Greatest Voyage)'이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왕인박사의 고대 국제 문화 전파 유산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존과 공영의 세계적 가치를 조명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민다는 방침이다.

'안전 축제', '생활인구 축제', '경제 축제'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축제의 성공을 지원할 '왕인문화축제기획단'도 구성한다.

기획단은 영암군 실·과·소와 협업을 통해 안전 대책, 생활인구 증대 방안, 사회단체 참여 확대, 교통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997년 시작된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역사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축제로 매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 전통문화를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영암군은 올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식 영암군 관광과장은 "영암의 봄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2025영암왕인문화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하겠다"며 "더불어 안전한 축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범 축제로 거듭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